



濁流清論

제5호 2010년 3월 29일(월)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화요보고대회

- 일시 : 매주 화요일 11시 45분
- 장소 : 을곡관 1층 로비

1월 12일(화) 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45분-12시 45분에 화요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재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구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솔밭에서 : 대학의 총장이란...	1
소인이 아닌 군자, superman이 ...	2
바람직한 총장상	3
소식	5
총장 직무 대행에게 바란다	6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광고	7
편집위원회 : 강명구, 구형건, 김혜선, 안재홍(편집책임), 이순일, 이재호, 한호	

배경사진은 김효동(미디어학부) 교수작
을곡관 앞 낙락장송입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대학의 총장이란...

- 문제의 제기(편집위원회)
- 소인이 아닌 군자, Superman이 아닌 Gentleman
유능하고 유명한 총장이 아닌 훌륭한 총장(박 옥 겔)
- 바람직한 총장상(임 한조)

문제의 제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지난 2월 후반 즈음에 '탁류청론' 3월 호의 이슈를 결정하기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재단이 졸속적이고 독선적인 방식으로 총장 선임을 강행한 터라 회의 분위기는 암울하고 침통했다. 과연, 내달 이맘 때 즈음 교수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인가? 갑론을박의 와중에서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롭게 총장을 모시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져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호의 이슈를 '바람직한 총장상'으로 정하였다. 마치 족집게 점쟁이가 된 기분이다. 총장 사퇴로 인하여 이제 다시 우리대학은 총장 선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재단이 대학사회가 합의한 총장선임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대학 총장을 마치 사기업 회장이 계열사 사장 다루듯이 독선을 일삼은 재단 이사장도 퇴진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초심을 살려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한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소개한다. 이에 앞서서 원론적 차원에서 대학과 대학 총장의 직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한 한국 대학의 총장에게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의 소재를 짚어보고자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아마도 대학이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일 것이다. 중세 이후 제국도 국가도 기업도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대학은 아직 건재하다. 오랜 역사를 사랑하는 대학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대학이 나름대로 고유한 조직 원리를 계발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국가나 기업 등 여타 조직의 원리가 대학에 쉽게 접목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탁상공론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을 넘게 기업조직의 원리를 선부르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대학에 접목시키려 한 무모한 행동이 대학사회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생각대로' 식의 단순한 발상이 강행되어도 되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다.

물론, 대학은 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할을 설정해야 하며 조직의 원리를 창출해야 한다. 중세 이후 대학은 ‘근대’(modernity)로의 이행에 필요한 지식과 인력을 사회에 공급해왔다. 사회는 보편적 지식 탐구의 요람으로서 대학에 권위를 부여하였고 관대했다. 이처럼 보호된 환경 속에서 대학은 오래 동안 상아탑으로서 사회와 격리된 채 학문영역을 보편적 지식의 탐구라는 기치 하에 끊임없이 세분화·전문화시키는데 골몰했다. 그러나 탈근대와 IT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에 안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인간과 사회가 세분화된 지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은 보편적 지식의 추구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탈분화’(de-differentiation)된 복합적 지식을 생성함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첩된 역할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이러한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이 시장주의와 알파한 법적 논리로 무장된 집단이 대학사회를 장악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대학사회가 황폐화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부분 대학사회는 총장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근대화의 과제와 함께 탈근대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민주화 이후 아직도 총장선임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의 권위와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에도 대학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학재단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대학을 단순히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권한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상식이다. 더구나 재단은 사회가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리를 부여한 ‘법인’(corporation)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 사학재단은 대학 본연의 공적 임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대학을 소유하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총장선임 과정에서 재단들이 보이는 있는

행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대학발전의 역사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재단 법인은 대학의 격에 맞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러 대학은 민주화 이후 총장직선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재단이 일방적으로 대학을 소유하려는 작태를 일단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는 대학사회를 정치화시키는 폐해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서구 선진 대학에서처럼 대학과 재단이 합의를 통해 총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아주대학교 교수협회의도 이미 2001년에 대학사회의 합의를 거친 총장선임규정(안)을 재단에 제안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단은 이를 폐기하였다. 교수회는 다시 2009년 10월에 국내외 대학의 제도를 반영하여 과거의 총장선임규정(안)을 수정하였고, 이후 대학사회의 합의를 거쳐 총장선임규정(안)을 마련하여 재단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치졸하게 전개된 상황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터이다.

대학은 국가 또는 기업과 달리 고유의 조직적 특성을 지닌 기관이다. 대학은 수평적 소통과 자율성이 제도화되어 있을 때 역동성을 발휘하는 공동체이다. 고등교육과 학문탐구를 지향하는 대학 공동체는 교수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고자 할 때 창의적으로 진보할 수 있다. 대학은 권위에 의해 자발적으로 통제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총장의 권위가 대학 거버넌스체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권위는 통제 받는 사람들이 이를 인정할 때 발휘된다. 압력이나 인센티브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서구 선진 대학들은 장시간에 걸쳐 까다로운 절차를 밟으면서 총장을 선임하고 있다. 선임절차의 정통성이 지켜질 때 총장의 권위가 서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통제 받기를 원하는 총장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하며 어떠한 자질을 지녀야 하는가? 우리 모두 즐거운 고민에 빠질 그날이 도래하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한다.

소인이 아닌 군자, Superman이 아닌 Gentleman

유능하고 유명한 총장이 아닌 훌륭한 총장

박 옥걸(인문학부 교수)

최근 우리 대학의 신입 총장선임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 문제는 물론 대학의 운영구조, 의사결정과 그 시행 과정의 문제 등 다시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차체에 바람직한 총장상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총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공감대일 것이다. 대학의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는 수장이며, 지도자이며, 경영자이다. 대학의 관리, 운영을 주관하고 구성원의 활동을 조정하며, 대학의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대학은 교수, 학생은 물론 연구·전문·사무 부서의 직원 등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독특한 집합체인 까닭에 국가기관이나 사회, 기업 등 다른 일반 조직의 지도자나 경영자와 달리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학, 소양, 자질 등에 기초한 바람직한 총장으로서의 조건이라든가 리더십이나 능력을 따지는 일은 그리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의 총장은 그 어느 경우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인격이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능력이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지녔다 해도 도덕성과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 적임자라 할 수 없다.

대학은 학문과 더불어 인격을 연마하는 곳이다. 지식과 기술 습득에만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대학이 아니다. 대학과 대학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꿈, 인류의 미래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적어도 원론적이면서도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총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삼 《논어(論語)》에 나오는 두 개의 유명한 대목을 들어보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일체 만물에게는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있는 법이다. 이를 두고 공자는 위령공(衛靈公) 편에서, “군자는 작은 일은 알(하)지 못하나 큰 일을 받을 만하고, 소인은 큰 일을 받을 수 없으나 작은 일은 알(할) 수 있다.(君子不可小知而可大受也 小人 不可大受而可小知也)”라고 하였다. 이는 인재에게는 적재적소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곳에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군자란 누구이고, 소인이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또 하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자로(子路) 편에, “군자는 화(和)하고 동(同)하지 않으며, 소인은 동(同)하고 화(和)하지 않는다(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

和)”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에서 화는 거슬리고 비뚤어진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이의나 이견이 있을 때 적절히 조화할 줄 아는 것이고, 동은 작당을 일삼는 것으로 맹목적인 부화뇌동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의나 이견을 말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소인이라 하고 군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등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간단한 깨달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변 인물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좋은 후보자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총장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선천적인 본성을 탐구하여 사단(四端) 칠정(七情)의 도덕적 덕목으로 정리하였던 우리 선조들이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선비정신, 그 사단(四端) 가운데에서도 시비지심(是非之心,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은 도덕성의 목표이고,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은 인격의 목표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어야 할 스승에게 있어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인격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도덕성과 인격에서 부적격인 인사가 진리의 터전인 대학을 이끌고 나아갈 수장이 된다면 그 대학과 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사회가 도덕성과 양심, 인간성과 의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기에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총장은, 뛰어난 능력이나 추진력을 내세우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총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아주대학교는 소인(小人)이 아닌 군자(君子), Superman이 아닌 Gentleman, 유능하고 유명한 총장이 아닌 훌륭한 총장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총장상

임 한조(전자공학부 교수)

교수회로부터 “바람직한 총장상”을 주제로 원고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는 즉시 답을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첫째는 이 주제를 부끄럼 없이 다룰 만큼 열심히 살았고 식견이 높은지 자신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필자의 마음도 이제는 쇠진하여 대학발전을 위한 의지보다는 조용하게 있고 싶은 생각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니 이와 부탁받은 김에 평소의 생각을 몇 마디 하고자 한다.

개성이 독특하고 강한 교수들, 자유분방하게 자신을 추구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대학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또한 이들을 이끌고 대학을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게는 수없이 많은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미덕은 무엇일까? 그것은 헌신일 것이다. 주변에서 행정관련 업무를 빈틈없으면서도 쉽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행정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하여 조직의 수장으로 선호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어느 집단이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수장의 헌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헌신하지 않고 일을 쉽게만 처리하려는 수장은 기껏해야 관리자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집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일에 헌신하면서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매진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수장을 가진 집단이 발전한 예를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헌신은 우리 삶에서 공기와 같이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헌신하지 않는 수장이 맡은 자리를 마칠 때 그 구성원들이 헌신하는 지도자의 필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깊게 자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총장의 능력은 아마 미래에 대한 비전일 것이다.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절대적 상대적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집단이 처한 상황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장래에 대한 명쾌한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비전 있는 지도자만이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격려하여 장래를 미리 대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우리 대학이 겪는 어려움의 반 이상이 과거 너무나 오랫동안 비전 있고 헌신하는 총장을 가지지 못한 우리의 역사 때문은 아닐까? 물론 비전 있는 총장이 헌신하도록 대학문화를 만드는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융성한 집단은 시대정신에 발맞춰 구성원들을 이끌고 도전에 성공한 비전 있는 지도자들을 가졌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 대학을 책임진 총장에게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을 갖기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총장에게 필요한 미덕은 학문적 수월성, 엄격성과 강한 정신력일 것이다. 대학이 상아탑이라 불리던 시대는 먼 과거이다. 오늘날 외부사회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나 간섭뿐만 아니라 온갖 유혹도 있을 것이다. 총장은 이러한 각종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대학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문적 자유와 수월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총장이 갖춘 학문적 수월성과 엄격성은 가치판단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며 강한 정신력은 유혹과 간섭을 이겨내어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데 있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필자는 어느 대학의 총장이 가진 연구업적만 보아도 그 대학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다고 평소에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함을 확인해볼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행정을 잘하는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수월성을 어느 정도 이상 갖추고 행정능력을 겸비한 교수가 총장이 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문가 사회에서 관련분야의 수월성은 결코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총장의 자질도 이에 예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총장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하나만 더 말해보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총장일 것이다. 사실 필자는 어느 집단의 수장이 반드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민주적 성품을 가진 지도자만이 자신의 집단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에 적절한 지배구조로 그 집단을 발전시키기에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장을 선출하여 선출된 수장이 기대되는 역량을 발휘하면 그 집단은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도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니 이에 벗어나는 원칙이 별도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다른 집단과 대단히 다른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교수사회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조직이 병렬로 분포하는 조직으로 다른 어느 집단보다 위계질서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렬조직사회에서는 존경과 신뢰만이 리더십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병렬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대학총장은 그 구성원들이 신뢰하는 과정을 거쳐 선임되어 민주적 리더십을 보일 때에만 구성원들을 고무시켜 대학발전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렇지 않은 총장은 교수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며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조직이 발전한 경우는 역사에서 찾을 수 없으며 대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총장상은 어쩌면 시대에 따라 또는 대학의 위상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한 달라야 마땅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학의 모습으로 지고불변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학문을 창조하고 교육하는 곳으로서의 대학일 것이며 이러한 본질을 보호 육성하는 모습이야 말로 바람직한 총장상의 본령일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우선하는 자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간사회의 본질과 관련되는 면일 것이다. 우리 대학도 바람직한 총장상을 가진 총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소식

I. 이수훈 교수 총장 사퇴

재단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총장 선임과정에 입후보 한 3인 중의 한 후보로서 지난 2월 1일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으로 선임되었던 이수훈 교수가 총장 임명 18일 만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이수훈 교수에 관하여는 지난 2월 2일 교수회 화요 활동 보고 대회에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수회 대의위원회는 총장 선임의 프로세스와 내정자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감안하여 이수훈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2010. 2. 8일자 성명서). 동창회장도 내정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학교 본부와 재단에 요구하고 의혹이 사실일 경우 총장선임의 오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수회 조사위원회에서는 부당한 박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도 제기 되었습니다. 교수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수여에 대하여는 대학원 소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하여 연구 진실성 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에 보고서를 송부하였고, 중복게재 및 박사학위 수여에 대한 연구 진실성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합통신을 비롯한 몇 개의 언론사가 이수훈 총장 선임

자의 연구 진실성 및 학문 윤리 위반 의혹에 대한 보도를 내었습니다.

이수훈 내정자의 취임식이 3월 8일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실제로 동창회원 몇 분들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의 취임식 반대 성명이 있는 이후, 취임식은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이수훈 내정자는 정통성의 문제와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문제로 고뇌를 하다가 결국 3월 18일 오후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이수훈 교수의 선임, 의혹 제기, 그리고 사퇴까지의 과정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재단이 “교수회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억지로 밀어 부친 것이 얼마나 큰 상흔(trauma)을 남겼나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억지를 부렸던 재단 그리고 그 책임자는 반드시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정당하고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을 총장으로 모셔 우리 대학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II. 선택적인 뉴스 클리핑과 대학원 위원회 구성

이수훈 총장의 임명 이후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연합 통신 등 언론에서 총장 선임자의 학문 윤리 위반 의혹 보도를 하자 10년 이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하는 아주대 관련 뉴스 클리핑 메일에서 이 기사들이 누락된 것입니다. 좀더 놀랐던 사태는 삭제 결정을 처장회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언론 통제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요활동 보고 대회(3월 2일)에서 한 교수님은 스키탠스키(저) 『존 메이나드 케인스』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이 사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이성이 죽으니 괴물이 탄생한다.”

대학원 위원회의 구성과도 관련하여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위원회는 이수훈 내정자의 두 박사 지도 학생들의 학위와 관련한 권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장은 몇 개 대학에서는 계열장에게 추천을 받던 관행을 깨고 계열장이 아닌 교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추천을 받았다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혹을 살 수 있는 구성을 했다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결정의 또 하나의 예라고 생각됩니다.

III. 윤원석 이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

3월 10일(수) 개최된 교수회 대의위원회에서는 일방적이고 졸속된 총장선임의 주역이었으며 이제까지 학교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 윤원석 이사장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 사학의 역사에도 드문 일입니다.

현재 재단과 교수회와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투표의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유동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을 하여 대학 명성과 재정적 실추를 가져온 윤 이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 결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IV. 박종구 전차관 총장대행 임명 강행

이수훈 내정자가 총장직을 사퇴한 직후 교수회는 지난 1년 내내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현 부총장이 아니면서 이후의 총장선임까지 학교 행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총장서리 임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를 일축하고 지난 3월 22일 박종구 전차관을 총장대행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수훈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여야 함으로 정관에 따른 어

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해명을 동창회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해왔다고 합니다. 교수회를 격하시키는 정관개정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모순입니다. 박종구 전차관의 총장대행 임명은 교수사회를 무시해온 일련의 행동의 또 하나의 반복입니다.

총장 직무 대행에게 바란다

이 순일(자연과학부 교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지난 일주일을 여는 날씨가마저도 눈비 내리고 쌀쌀한 데 더해, 학내에 우려할만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봄 같지 않은 우중충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덕에 누리는 호사의 하나가 봄이면 새로운 학생들의 등장과 더불어 ‘희망’과 ‘활기’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맞는 기쁨인데, 이번 봄에는 그런 감흥이 일지 않는다.

대학 총장 후보를 물색하고, 자격을 갖춘 후보들 중에서 최적임자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중요한 일에 몇 달의 시간을 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인 이사장의 인식이 초래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인사의 총장선임’이 야기한 혼란이 뒤늦게나마 당사자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총장사퇴’는 교내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는 우려를 많은 동료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걱정을 담아 교수회가 현 사태 타결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번에도 재단은 ‘총장서리’의 임명대신 박종구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길을 택해, 사태 해결의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무부총장의 총장직무대행 임명이 재단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이라는 현실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난 며칠간의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의 행보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많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은 결코 본인이 아주대학의 차기 총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과부의 전 차관으로 퇴직과 더불어 아주대에 오는 과정이 대학의 상식에 어긋나며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까닭에 대학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흠결이다. 본인의 특별임용과 무리한 교무부총장 임명에 대한 교수들의 항의가 지난 해 내내 지속적으로 표현된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심지어 법인 이사회도 박종구 교수가 아주대 총장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총장을 선임한 28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3인의 후보자에 대해 투표한 결과 이번에 사퇴한 이수훈 교수가 9표를 득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뒤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자면 나머지 1표는 후보자 3인 중 다른 한 사람이 득표하였으니, 결국 박종구 교수는 1표도 얻지 못한 것이다. 동 회의록에는 또한 이사회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 중 한 사람이 ‘오늘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등록된 총장후보자 세 분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로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 박종구 교수에게 이사들이 투표하지 않은 것은

박 교수의 총장 선임에 이사들이 명백하게 거부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리 편의적인 수정 해석을 시도한다 해도, 선임 18일 만에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는 후보보다 못하다고 평가된 박종구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선임하는 황당한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셋째, 그렇다면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의 역할은 자명하다 하겠다. 총장직무대행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어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소리 없이 수행 하여야 한다. 분명하게 밝히건대, 현재 우리대학은 기관/기구(institution)로의 총장 직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할 총장직무대행을 필요로 할뿐이다. 차기 총장 자리에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거나, 향후의 대학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을 용인할 형편이 아니다. 차기 총장의 선임이 향후 2~3개월 내에 엄정하고도 공정하며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교내에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은 신임 총장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직무대행이 불필요한 혼선을 빚고 우려를 자아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일 년여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도록 자숙하여야 할 것이다.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은 그 동안 본인 때문에 우리 대학이 지불해야 했던 큰 비용을 자각하고, 학교가 신임총장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조용히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정상체제의 가동에 즈음하여 신속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명토 박아두고자 한다. 지금 박종구 교수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총장직무대행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이다. 총장직무대행 임명의 유일한 사유가 현직 부총장이라는 점 일진데, 부총장 임명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동료 교수들의 의견을 생각한다면 총장직무대행직에 남아 있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당장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좋은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는 현실적 편익을 고려하여, 특별임용 및 부총장 임명과 관련한 근원적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 본인의 문제가 덮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론을 내세워 총장직무대행직 수행을 고집하는 경우에도, 그 동안 본인 때문에 우리 대학이 지불해야 했던 큰 비용을 생각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업무만 조용히 처리하다가 학교가 신임총장 책임 하에 제대로 운영되는 정상체제의 가동에 즈음하여 신속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번 사태에 관하여 보내주신 짧은 문구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아보았습니다.)

-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토요타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분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알리는 입을 틀어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정하는 것입니다.
- 법정 스님의 다비식에서 그의 상좌 덕현 스님이 불들어 가는 순간 외쳤던 “화중생련(火中生蓮)”을 생각해 봅니다.
“불꽃(욕망) 속에서도 연꽃을 피워내야, 마침내 시들지 않는다” 그는 불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아주대도 추문을 덮으려하지 말고 태워서 극복해야 시들지 않습니다.
- 顔面 沒收하고, "아무리 말(馬)이라고 우겨보았자 사슴(鹿)이 말이 될 수는 없지요" (指鹿爲馬) -- 趙高 아뢰.
- 기다렸다는듯이 덩석 총장직무 대행을 맡은 전 차관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누구 때문에 이 혼란이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박 전 차관은 또 한 번 실수하였다. 교수들과 화해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총장"이라는 직함이 들어가니 앞뒤 안보고 뜨거운 감자를 베어 무는 형국이란...
- 법대로 좋아하는 이사장님. 한자로 法이란 글자를 풀어보면 물 水와 갈 去가 합한 형상입니다. 법이란 물 흐르듯 하는 상식과 순리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내 법대로" 식으로 역류하시네요. 그래서 탁류에는 청론이 필요하지요.

광 고

4월말 발간예정인 <탁류청론 6호>의 주제는 “대학에서 보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관련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경구들을 <소리 없는 아우성>에 보내 주십시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대학사

회의 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자재로 활용할 것입니다.

보내실 곳 : makim@ajou.ac.kr(교수회 이메일)

메모 란



교수회가 제안하는 현 상황의 타결 방안

오늘 이수훈 교수가 총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만사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이수훈 교수의 결단으로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교수회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학이 맞고 있는 위기 상황이 해결되어야 함을 천명합니다.

첫 째, 차기 총장 선임까지 총장 서리를 임명하여 혼란한 상황의 가닥을 잡고 학교를 운영 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경우에 총장서리를 임명하여 상황을 타개한 고려대학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지난 1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미 이사회에 의해 총장 자격 미달이 선언된 현 부총장이 총장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둘 째, 차기 총장 선임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학교의 위상에 걸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재단에 제출된 아주대 학내 구성원 합의(안)에 따라 좋은 총장을 모시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제에 매 4년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셋 째, 윤원석 재단 이사장은 총장 선임에 있어서의 반복적인 문제와 10년간의 학교 퇴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아주대학이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학교가, 혹은 없는 듯이 감추는 학교가 좋은 대학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오히려 발전의 전기로 삼는 것, 그것이 대학의 수준이요, 구성원의 역량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대학 발전의 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수회 대의원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 헌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18일
아주대학교 교수회 대의원회

총장선임 바로하여 아주대학 살려내자!
아주대학교 교수회

독선재단 대학퇴보 이사장은 물러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